



‘아이폰X’, 3D얼굴인식시스템 눈에 띄네

(텐)

10주년폰 애플 ‘아이폰X’ 공개

OLED·증강현실 등 첨단기술 적용 가격도 역대급...100만원 훌쩍 넘어 한국선 이르면 12월에나 선보일 듯



애플이 ‘아이폰’ 10주년을 기념해 만든 ‘아이폰X’가 베일을 벗었다.

IT 애플은 13일 미국 캘리포니아 쿠파티노에서 제품 발표회를 열고 아이폰X와 ‘아이폰8’, ‘아이폰8플러스’를 공개했다. 가장 관심을 끈 제품은 아이폰 10주년을 맞아 내놓은 아이폰X다.

아이폰X는 그동안의 아이폰과는 다른 기술이 도입됐다. 무엇보다 아이폰 최초로 역정표시장치(LCD)가 아닌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적용했다. 애플은 이를 ‘슈퍼레티나 디스플레이’로 명명했다. 크기는 5.8인치이며 테두리(베젤)가 거의 없는 전면 디자인이 특징이다.

지문인식 시스템 대신 도입한 3D 얼굴인식 시스템인 ‘페이스ID’도 눈길을 끈다. 이를 위해 전면이 3만개 이상의 보이지 않는 적외선 도트를 투영할 수 있는 700만 화소의 ‘트루옵스 카메라’를 달았다. 사용자들은 페이스ID 기능을 활용해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는 것은 물론 인증 및 결제까지 할 수 있다. 트루옵스 카메라로 다양한 표정을 이모티콘에 입혀 목소리와 함께 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애니모티콘’ 기능도 제공한다. 프로세서는 애플이 아이폰X의 특징 중 하나로 내세운 차세대 증강현실(AR)을 지원하는 ‘A11 바이오닉’이 적용됐다.

필립 실러 애플 마케팅 수석 부사장은 “페이스ID로 잠금 해제하는 것부터 물입감 있는 증강현실 게임, 메시지의 애니모티콘 공유까지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며 “아이폰X는 스마트폰의 미래로 아이폰의 향후 10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다”고 말했다.

애플의 야심작 아이폰X의 특징은 제품 출시 전 유출된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조급 김새긴 했지만 얼굴인식이나 AR 등 새로운

기능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경쟁 제품보다 다소 높은 가격과 늦은 출시시점은 부정적 이슈로 꼽힌다. 애플은 아이폰X를 미국을 포함한 국가에서 11월3일에 1차 출시한다. 제품이 공개된 뒤 두 달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 한국은 1차 출시 후 통상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이르면 12월, 더 늦으면 해를 넘겨야 아이폰X를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격도 높다. 미국 기준으로 64GB 모델은 999달러, 256GB 모델은 1149 달러다. 한국에선 100만원을 훌쩍 넘어 최근 프리미엄 제품 중 가장 높은 가격에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애플은 이날 아이폰8과 아이폰8플러스도 공개했다. 지난해 나온 ‘아이폰7’ 시리즈의 업데이트 모델이다. 아이폰X와 달리 LCD 화면이 적용됐다. 가격은 64GB 기준 각각 699달러, 799달러다. 미국 등에서 이달 22일 1차 출시된다. 한국에선 이르면 10월 말경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애플이 13일 공개한 ‘아이폰X’는 5.8인치 OLED 화면에 얼굴인식 기능인 페이스ID가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사진제공 | 애플

한 눈으로 보는 경제

13일

코스피지수	2360.18	↓	-5.29
코스닥지수	659.09	↓	-0.96
日 닛케이 지수	1만9865.82	↑	+89.20
중 상하이 종합	3384.15	↑	+4.66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74	↓	-0.01
환율 (원·달러)	1128.50	↓	-1.5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8294.98	↑	+164.68

오늘의 얼굴

김동연 부총리, 통상임금 검토 언급



김동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식대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김동연 부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통상임금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상여금과 식대가 산입되도록 하는 정책은) 태스크포스(TF)에서 보고 있다”며 “단 지역별·산업별로 최저임금을 탄력 운영하는 방안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보수체제와 관련해 “연봉형 보수체제가 과도한 점이 있어 개선할 부분이 있다”며 “직무급제 도입과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을 국내로 되돌리는 유턴정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인센티브나 노동시장 문제도 보면서 검토한 후 종합대책을 내겠다”고 말했다.

비즈 TALK TALK

▼“손쉬운 대출로 가계빚 폭증, 카뱅 케뱅 규제해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토론회에서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로 대출이 무분별하게 늘어난다고 지적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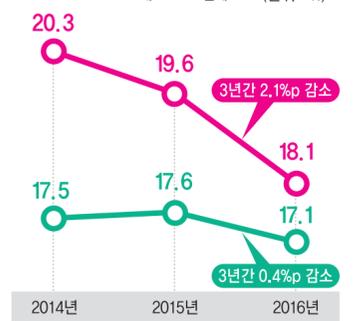
▼“비트코인은 사기, 톨립 버블보다 더 해” (제이미 다미엔 JP모건체이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13일(한국시간) 열린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열풍을 17세기 네덜란드의 ‘톨립 버블’과 비교하며)

데이터 경제

30대 노후준비 관심 높지만 개인연금보험 가입은 크게 줄어

노후생활 준비에 대한 관심은 20~30대가 가장 높았지만 정액 개인연금 보험 가입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약 884만 명이 개인연금보험에 가입, 총 인구 대비 가입률은 17.1%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가입자수는 2.3%, 가입률은 0.5%포인트 감소했다. 최근 5년간 개인연금보험 가입률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는 하락세를 보였다. 연령대별 가입률 현황을 살펴보면 40대 29.6%, 50대 25.3%, 30대 21.4% 순으로 이들이 전체 가입자의 76.3%를 차지했다. 그러나 20~30대 가입률은 최근 3년간 2.1%포인트 감소해 전체 가입률 감소분(0.4%포인트)보다 5배 이상 높았다.

20~30대 가입률 하락과 전체 가입률 하락폭 비교



역시 대세는 전기차...글로벌 자동차메이커 무한경쟁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로 본 트렌드

벤츠 2020년까지 50여종 전기차 출시 재규어, I-PACE 전기차 레이스 대회 개최 BMW 제로백 4초 i비전 다이내믹스 공개 폭스바겐 2030년까지 전 모델 전기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의 전기차 전장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67회를 맞은 2017 프랑크푸르트

자동차 국제 모터쇼(IAA)에서 글로벌 메이저 브랜드들이 가장 집중하는 분야는 전기차다. 새로운 혁신 기술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플랫폼 선점을 통해 향후 전개될 전기차 시장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 각 브랜드의 주요 전략과 전력을 살펴봤다.

●메르세데스-벤츠 ‘컨셉트 EQA’ 공개

메르세데스-벤츠는 전기차 브랜드 ‘EQ’ 최초의 콤팩트 사이즈 컨셉트카 ‘컨셉트 EQA(The Concept EQA)’를 공개했다. 컨셉트 EQA는 전 차종 전기 구동화를 지향하고 있는 벤츠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이다. 전기차 전용으로 개발된 플랫폼을 기반으 장거리 주행 능력(최대 400km, 장차 배터리 별 상이)을 갖췄다. 두 개의 전기모터가 장착되며 최고 출력 200 kW(270마력), 최대 토크 500 Nm(51.0 kg.m)을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5초 이내에 달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콤팩트 사이즈 전기차 ‘컨셉트 EQA’(왼쪽)와 BMW의 ‘i 비전 다이내믹스’는 각각 400~600km에 이르는 장거리 주행능력과 제로백 4~5초대의 고성능으로 무장하고 전기차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

고성능도 갖췄다. 충전은 월박스 등을 이용해 일반 충전 및 급속 충전으로 가능하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메르세데스 미(Mercedes me) 서비스를 활용해 공유 충전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벤츠는 2022년까지 10개 이상의 순수 전기차를 포함해 전체 라인업에 걸쳐 총 50개 이상의 전기 구동화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BMW, i 비전 다이내믹스 공개

BMW 그룹은 BMW i 비전 다이내믹스(BMW i Vision Dynamics)를 공개했다. 전기차 모델군인 i3와 i8 사이에 위치한 역동적이고 실용적인 4도어 그란 쿠페다. E-모빌리티를 추구하는 BMW 그룹의 새로운 비전 컨셉 역할을 수행한다. 디자인부터 혁신적이다. 기존 BMW i 시리즈에서 볼 수 없던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



메르세데스-벤츠의 콤팩트 사이즈 전기차 ‘컨셉트 EQA’(왼쪽)와 BMW의 ‘i 비전 다이내믹스’는 각각 400~600km에 이르는 장거리 주행능력과 제로백 4~5초대의 고성능으로 무장하고 전기차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

했다. 1회 충전으로 최고 600km의 주행이 가능하다. 최고속도는 200km/h,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 시간은 4.0초. BMW E-모빌리티 기술의 한계를 또 한 번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규어, I-PACE 레이스 카 공개, 레이스 진행

재규어 랜드로버는 2018년 출시할 고성능 프리미엄 전기 SUV인 I-PACE를 기반으로 개발된 I-PACE 레이스 카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와 함께 FIA Formula E 월드 챔피언십을 지원하는 첫 단일 브랜드 전기차 레이스 ‘I-PACE eTROPHY’를 2018년 하반기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재규어 I-PACE eTROPHY에서는 최대 20대의 I-PACE 레이스 카들이 홍콩, 파리, 상파울로, 뉴욕 등 2018년 포뮬러 E가 열리는 도

시의 서킷에서 10차례 레이스를 진행해, 미래의 포뮬러 E 스타들에게 대응된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폭스바겐 그룹, 전기차 전략 ‘로드맵 E’ 발표

폭스바겐 그룹은 전기차 추진 전략 ‘로드맵 E’를 발표했다.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전략으로 2030년에는 전체 모델의 전기화를 최초로 달성하는 가장 큰 모빌리티 기업이 되겠다는 것이 목표다. 폭스바겐 그룹은 로드맵 E를 통해 2025년까지 그룹 브랜드 통틀어 80종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030년까지 그룹 전 브랜드를 통틀어 약 300개 차종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전기차 모델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폭스바겐 그룹은 2030년까지 200억 유로 이상 직접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롯데마트, 김포한강점에 ‘스매싱나인’ 오픈

유립 인기 스니커즈 등 종합 솔루션 제공

롯데마트가 15일 김포한강점 2층에 슈즈 멀티 브랜드숍 ‘스매싱나인’(사진)을 오픈한다.

‘스매싱나인’은 테니스에서 공이 라켓에 잘 맞았을 때의 기분 좋은 느낌처럼 최상의 상품 가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의미다. 나이키, 아디다스 등 메가 히트 브랜드는 물론이고 유립의 인기 스니커즈 및 양말 부츠, 켈리 슈즈 등을 종합 취급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신발 시장에서 운동화는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올해 안으로 슈즈 멀티



브랜드숍을 9개까지 늘릴 계획 이다.

윤주경 롯데마트 영업본부장은 “서울양평점의 이반 포레스트, 서초점의 그로서란트, 김포한강점의 스매싱나인 등 올해 오픈하는 롯데마트 매장에는 늘 새로운 시도가 이뤄졌다”며 “기존 오프라인 공간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롯데마트의 실험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정정호 기자 jiy@donga.com

넷마블 ‘테라M’ 사전예약 50만 돌파



넷마블게임즈는 11월 출시 예정인 모바일 다중접속역할 수행게임(MMORPG) ‘테라M’(사진)의 사전예약에 4일 만에 50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참여했다고 13일 밝혔다. 테라M은 원작 PC온라인게임 ‘테라’에서 호평 받았던 캐릭터와 그래픽은 물론, 논타겟팅 및 연계를 활용한 콤보 액션과 방대한 세계관 등의 즐길거리를 갖춘 하반기 기대작으로 주목 받고 있다. 테라M 사전예약은 예약 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넷마블은 출시 전까지 사전예약에 참여한 이용자 전원에게 게임재화

인 ‘레드랩’ 1000개를 지급하고 갤럭시S8플러스와 게임아이템 등을 추첨과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렉서스 코리아, All New CT200h 런칭

렉서스 코리아는 하이브리드 콤팩트 해치백 모델인 All New CT200h를 출시했다. All New CT200h는 새롭게 디자인된 스펀들 그릴은 물론, 스타일리시한 후 툰 익스테리어 컬러를 통해 스포티한 외관을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 높은 연료 효율성과 강력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퍼포먼스를 함께 누릴 수 있다. 렉서스는 출시를 기념해 9월 말까지 전국 렉서스 전시장에서 하이브리드 라인업 시승행사를 개최하며, 일러스트 작가들과 함께하는 ‘ART BY CT’ 이벤트도 진행한다. 원성열 기자